

27-3/한대8

푸르샤프

도움선 : 등하 : ?

푸르샤프 : 등하 :

가동한 내리 :

사명공 민방 (주인공의 명문).

내리사랑 공.

0

2018년도 단기선교

주사랑

[ 선교지: 캄보디아 포르샤트 ]

2018.1.23(화) ~ 1.30(화)/(7박8일)

「 이번선교는 두번째로 캄보디아 선교를 떠났었습니다.

첫번째 떠났었던 선교만큼 두번째선교도 배울것이 많았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소통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 많은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외모로 보았을때는 무서워보이고 우리가전하는 복음이야기를 잘받아드리지 않을거같았지만  
오히려 더 알려하고 싶어하는 표정과 호기심많은 눈으로 잘 들어주어서 이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언어를 알아듣지못하여 궁금해하는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여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크게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언어를 더 배우가 더 열심히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일에는 한국의 김동환선교사님을 만나보았는데 몇십년간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받아 전도를 하고 계시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보았다.

캄보디아를 위해 우물을 파주시고 교회도 물려주시고 좋지않은환경만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열심히 사시는 선교사님을 본받고싶었다.

사역비가 부족하여 마음껏 전도지를 전하고 싶은데 마음껏 전해줄수없해  
울컥하시는 모습이 옹골차였다.

두명의 학생이 앉아있는데 두명 다 전도지를 주어야 하는데 한명밖에 주지못하여  
마음이 아프신적이 많으셨다고 한다. 그말을 듣고나니 나라도 무슨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는데 도움 줄수있는 방법이 전도뿐이여서 전도를 더 열심히한것같다.

만약내가 그상황이였다라면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편안히교회다니며  
나의 친구나 지인들을 전도하였을거같은데 ~~김동환~~ 김동환선교사님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느꼈다. 같이전도를 하시면서 현지말을 번역해주셨는데 우리가 이해하지못했던 사람들의  
사면과 말을 알아들 들수있었다. 언제나 캄보디아로 가도 환하게우리를 맞아주시는  
캄보디아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선교팀이 다치지않게 하시고 언제나 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2018년 캄보디아 선교는 잊지못할 하나님의말씀을전하는일이였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싶습니다.

2018년호 단기선교

[ 선교지: 캄보디아 포리스트 ]

2018.1.23 ~ (1.30 / (1박8일)

이번에 간 선교는 첫번째 간 선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알고 느낀 것 같다.

맨 처음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 거기는 지금 겨울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더워서 감작 놀랐다.

여름보다 더 덥게 느껴져서 힘들었지만 선교를 하며 돌아다니고 그러다보니 습을 낳게도 사치도 적응이 되었다.

그때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에 더욱 놀란 것은 바로 우리 선교팀의 운전기사였다.

그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한국말을 꽤 잘하셔서 나는 독으로 '무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보니 '쁘란' 라고 하는 기사님이 전에 우리 포리 선교팀의 기사였어서 한국이 ~~좋음~~ 했다고 한다.

쁘란가 장난기가 많고 성령이 충만하여 차 타고 돌아다닐 때 재밌었고 찬양을 부르며 돌아다니는데 브르스도 중간중간 같이 찬양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즐거웠던 것 같다.

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고 정말 많은 고난과 당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성이 사역한 우리 선교팀이 자랑스럽기도 했다.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나는 김광호 선생님이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그 아픈 다리를 끌고 선교로 다니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아픈선 선생님의 도움이 리머드리지 못해 ~~안타~~ 괴로웠다.

그리고 사역 중에 몇번 계속 복음을 가진 적이 있는데 반항해야 할 것 같고, 다른 마음 한편으로 전도하고 찬양도 그 현지 사람들이랑 부르고 싶은 욕심이 들게 해주셔서 하나씩 감사하다.

그래서 인저 그 현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려면 너무 기뻐했다.

가장 좋고 기뻐했던 것은 '김동찬' 아라고 하시는 한국 전도사님을 이번 선교때 만난 것이다!

그 전도사님을 만나 전도사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참 대단하다고 느꼈다.

김동찬 전도사님이 11년째 캄보디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말하셨는데 신기했다.

그 전도사님이 선교할 때 가끔 같이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메이'이다.

메이는 캄보디아 사람인데 한국에서 5년동안 살다와서 한국말을 할 수 있고 캄보디아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선교를 하는데 전에 선교하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것이 없어졌다.

사람들이 때 ~~말~~ 쓸 때 많은 말을 하더라도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그래서 못한다.' 그런 것을

말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사람들도 답답하고 우리도 답답했는데

메이가 같이 선교를 나가서 통역을 해주니 너무 좋았다.

최마 선교의 마지막 집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옆에 볼록에 녹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는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받아온 전교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집중하면서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았다.

보디아, 이 땅에 우리가 부린 씨앗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고

우리 선교를 톡 가고 싶다.

2018 2학기 선교 = 7월 보디아 프로젝트

이지훈

이번 선교는 힘들었다. 중간에 몇몇 문제도 생기고, 사역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끝낼 수 있었다. 사역하는 중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많은 것을 느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며 선교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역 중에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다음 선교에는  
더 당대하면 좋겠고, ~~복음~~ 복음 전하는데에만 집중하면 좋겠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좋겠고, 선교를 잘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2018년도 캄보디아 선교

장윤주

[선교지 · 캄보디아 프로젝트]

2018. 1. 23. 화 ~ 2018. 1. 30. 화 (7박 8일)

처음 오는 선교에서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나라~~ 캄보디아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첫날 사역을 나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받아들이 준비가 되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 널리 알리고  
울 수 있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갈 때 파종 나와주는 것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들었다.

둘째 날 사역은 근처에 학교가 있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는데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었다.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복음~~ 선생님들의 귀에도 복음이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했다.

다른 날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전하고  
다니는 복음을 들어주고 찬송을 들어주는 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다.

~~복음을~~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다가 한 선교사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기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교사 ~~분~~ 만나고 ~~그날 후에~~ 그 후에 선교사 분이 ~~서운~~ 교회를 방문하고  
본을

그 분이 선교사로 지내면서 있었던 일을 듣고 교회의 상황~~이~~이 어떤지 듣는데  
정말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분이 전도지를 마음껏 뿌려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전도지를 만들 수 없다고 할 때 ~~정말~~ 그 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버리고  
말아야지 라는 생각은 했어도 전도지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단 한번도 ~~하지~~ 하지 않았다.

선교를 와서 하나님을 ~~알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 자신을 ~~변화~~ ~~속~~ 변성하게 되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2018 만기연교  
지역: 포구사드

2018 1/23 ghr 1/80 gr

난 이번 ~~날~~가 두번째로 ~~중요한~~

이때, 첫 선교사로서는 자신이 조금 먼저

말 자만심을 가지지 않고 첫 선교 때처럼 일했다, 그리고 이번 선교에서 큰  
대단하신분을 만났다, 김동환 선교사님 안에 캄보디아 사역을 10년째 하  
신다고 했다. 또한 캄보디아에 교회를 7개나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양곡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목회자와 같이 캄보디아에 머무르며 가끔 같이 전도하러 가고 혼자서도 전도에 전도를 하러 가신다고 했다. 나도 나중에 중장기 선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예수님이 이번 선교를 통해 나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신 것 같다. 계속 선교를 가고 싶다. 그런데 염마가 성직이 잦아 나오면 이번 여름 선교를 안 보내 주신다고 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또한 이번에는 같이 선교 갔던 형, 누나들과 친구들과도 교회에서 모든지 하지 않고 선교 때처럼 잘 지내고 싶다. 이 캄보디아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 나라도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 같은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번 선교도 최선교 때처럼 재미있었다. 캄보디아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전도할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되겠다.

2018년도 단기선교

1 선교지: 캄보디아 프놈펜

이번에 처음으로 선교하러 캄보디아에 갔다. 중등부목사님

이 선교를 하실 때 선교는 의무라고 해서 모기티집으로 진짜 비행기에서 내려 땅을 밟기 전까지 그냥 말로만 선교인 것 같았다.

가다

나도 처음이어서 처음엔 많이 떨고 현지인의 눈치도 많이 봤다. 가다보니 하루, 이틀 계속 사역하면서 전파하는 자식들도 좀 생기면 내가 ~~한지인~~ 한지인을 더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할 것 같다. 온 한지인네가 한지인들의 잘 받아들이고 있다.

가다

사역을 하면서 한지인처럼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 같은 선교사님들 만나 같이 협력해 사역했었다. 이번 선교는 날씨, 한지인, 숙식 등 한지인이 도와주니까 함께 할 것 같아 기대했다.

이번 선교 팀들과도 더 친해져서 좋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캄보디아 한지인들 치러 주면 미용에 복이 있을 것 같다.

2018 단기선교

오유빈

사역지: 캄보디아 포르사트

선교를 처음으로 갔는데, 느끼점이 굉장히 많았다.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지난 2년 동안 선교를 왜 안갔는지 회회이다.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문화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캄보디아 사람들이 잘 받아주어서 감사하다.

늘 인도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 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히 어려운 환경에서, 친구들은 지루도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에서라고 했다.

말하는데, 정말 눈물이 핑돌고 슬펐다.

그 선교사들은 한국으로 전도해서, 교도소도 가고, 건강을 돌아다녀시면서 전도를 하

신다고 한다. 많은 분들이 이 선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

이 외에도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감사하고

내가 전도한 주민들이 전복 주머니를 받고 주된 보습 약, 이런 것들 있다.

캄보디아는 사시사철 여름이고 더워서 힘든감이 있지만 편하고 잘해 주는

생각이 크게 들었고 이곳에서 이 시간, 이 시간, 날들이 다 은혜롭고

참고 중한 시간을 이었던 거 같다.

나는 교회에서 찬양대도 가고, 면회도 하고,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슬기히 선교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내가 기뻐하지 않고

가겠다고 한 내가 자라나고 그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

혹시나 선교를 안가면 내 인생이나 동생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가보는 걸 추천한다.

캄보디아 포르사트 지역을 돌아보며

정돈중.

7박 8일의 선교기간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니다. 팀원들의 그고 작은 부상도 많이 있었고 다같이 시간을 내어 모이는 일도 쉽지 않았기에 불안한 마음을 많이 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 도착하여 사역을 하는 동안 권사님들의 섬김으로 인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중등부 학생들의 찬양과 신앙고백을 들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여러 마을을 다며 많은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귀기울여 들어주고 전도지도 내리지 않고 잘 받아주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순수하게 캄보디아 땅의 영혼을 생각하는 중등부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사역중에 만난 한국인 선교사님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만을 생각하시는 꾀 그분의 열정을 보며.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선교사로 사용하더 주심에 너무 감사했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더욱 힘써야 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다가올수록 7박 8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고 복음을 더 전하고 가지 못함에 아쉬움이 조금은 남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님의 계획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캄보디아 땅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 마귀막으로.

선교팀 한사람 한사람이 이곳에서 받은 주님의 은혜로 또한 이 땅의 영혼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도 중등 단기보고

권여진

[선교지 : 캄보디아 포리스트]

(2018.1.23.화 ~ 1.30.화 / 7박8일)

이번 단기보고를 정말 잊지 못할 것이 많고 중재가 많이 아쉽다. 이제야 좀 캄보디아에 적응했는데... 이렇게 적응하자마자 집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내가 캄보디아에서 단기보고를 하고 있을 때를 생각해가며 지내며 지낸다. 어떻게 하면 단기보고 때와는 다르게 이번 단기보고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캄보디아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해 더 전하고 싶다는 것이 대해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 선교사역을 하는 중에 감동받고 하는 캄보디아 선교사들을 만났다. 선교를 하면서도 왔을 때도 불행히 캄보디아 선교사들을 만날 적이 많았지만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었고 동시에 의심도 같이 자라났던 것 같다. 그런데 전도지를 한장 주셨는데 왜이렇게 '혹시 이단이면 어쩌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

다행히 열심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지고 전도를 하시는 분이셨다. 영광의 역사시대 그분이 세우신 '광복교회'라는 곳에 가서 감동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다. 캄보디아에서 11년째 선교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다. 11년째 선교를 하시면서 교회가 꽤만도 하고 또 한국에서 교회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열심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까지 지고 선교를 하시는데 너무 멋지었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 되게 자랑스러웠다. 감동한 선교사님에게서 학교와 교회를 주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항상 기쁘고 힘이 쏟아 한명이라도 불쌍하면 매일 열심히 전도하신대 하셨다. 자신 선교사가 사역에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혼자서만 대치하여 '예이' 라는 찬미와 사역을 같이 하고 싶어서인지 영어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계시고 또 혼자서만 대치하여 '예이' 라는 찬미와 사역을 같이 하고 싶어서인지 영어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계시고 많이 힘들다고 하셨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울컥했다. 우리 중보교회가 부족해서 더욱 감동한 선교사님을 위해 가하고 또 도와드리면 좋겠다. 감동한 선교사님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

는데 공이 저렇게 \*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막대한 것인지 때문 위험한 ~~이런~~ 때가 있다고 느끼고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소명하고 귀한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앞을 비추게 해주시고 그 계획대로 꼭꼭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항상 은사하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 이 세상을 점점 사탄마귀가 지배하는 만큼 기독교인들이 빛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파해야겠다는 교회를 믿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에 좋은 팀원들과 좋은 선생님과 믿음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감사하고 팀원들에게 더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사명을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

주님

## 선교를 다녀와서

중등부 : 정혜진 권사

2018년에도 변함없이 동행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올 수 있게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같 때 마다 캄보디아의 발전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음을 매 번 느꼈지만 이번에는 더욱 많은 변화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놈펜 시내와 우리가 사역한 포르샤트에는 신축건물, 신설도로, 대중교통 수단의 확장, 철도신설을 비롯한 발전과 도로의 늘어난 차량의 수를 보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상황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 지금 이 때가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는 제일 좋은 환경이다라는 바쁜 마음이 들면서 지난 시간 나의 경험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만 믿고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담대하게 복음만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이 캄보디아 포르샤트 지역으로 보내주셔서 왔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예비해주신 영혼들 앞으로 인도해주세요 조용히 기도해봅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전도지를 전하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바쁘게 전하다가 뒤돌아보면 전해준 전도지를 보며 자기들 끼리 읽는 모습을 볼 때면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향해 내려 쏘인다 해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절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한 생명이라도 놓칠세라 복음을 전하며 손잡고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하며 듣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 밖에 가진 것이 없는 죄인을 사랑해주신 주님만을 경외하고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기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로 예수님만 전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